



피터 브뤼겔<세례자 요한의 설교>
1566년, 셴무베제티 미술관, 헝가리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cokc@gmail.com

주임신부 : Joseph Juracek,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효주 (투스 평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이사야 40,1-5.9-11

회답송



(후렴) 주 님, 저 희 에 게 자 비 와 구 원 을 배 풀 어 주 소 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의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베드로2서 3,8-14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 13,33-37

성가 | 입당성가 [91] 예물준비 [517]

영성체 [180] 파견성가 [93]

미사 봉헌

연미사

황경희 루치아
고현실
황창현, 최정인 안나

봉헌

황경숙 수산나
최은자 세실리아
황경숙 수산나

생미사

김혜숙마리아 김택영알버트 가정
김용기 요셉, 김기순 안나
2023년 청년회 임원들
양미숙 마리아 영육건강
안필립
이재이 미카엘라 가정의 평화
박정자 세실리아

봉헌

익명
김성중 다두
남지혜 크리스티나
이은경 헬렌
안영옥
성령기도회
송명근 대건안드레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영명일을 축하합니다~

실바노 비비안나 프란치스코하비에르 바르바라 아셀라 니콜라오 암브로시오 마리아 루치아 오틀리아 베난시오 십자가의요한 알비나 라자로 스테파노 사도요한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교우분들을 위한 판공성사

성탄전 깨끗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으시도록 **고해성사**에 초대합니다.

일 시		고해 사제
12/17(일)	10:30~1:00	김찬미 가비노 신부(서울 대교구)
		조홍래 베드로 신부 (뉴약교구 St.앤드류 소신학교 학장)
		김진열 가롤로 신부

▶판공성사(辦公聖事)

- '판공성사'는 한국 교회에서 정한 신자의 6가지 의무, 즉
1.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 미사 참여
 2.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고해성사
 3.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영성체. 4. 금식재와 금육재 준수
 5. 교회 혼인법 준수. 6. 교회 유지비(교무금) 부담

중에 2.번째 규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참된 신심 생활을 하려면, 자주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함으로써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으로, 또는 냉담 하든지 하여 그동안 성사를 보지 않았다면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의무를 지워서라도 성사생활을 하도록 권유합니다. 이를 '판공성사'(辦公聖事)라고 하며, 판공성사를 보는 시기는 교회의 가장 큰 축일인 부활(봄 판공)과 성탄 전(가을판공), 두 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우분들! 판공성사를 통해 가볍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으세요~☺

▶12/24~25 미사 안내

12/24(주일) 9:15 Am 대림 제 4주일 미사
12/24(주일) 8:00 Pm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
12/25(월) 9:15 Am 주님 성탄 대축일 낮미사

▶청년 판공성사

일시: 12/9(토) 오후5시, 청년미사전 아래성당
신청문의: 청년회장 양정운 쌤/ 카톡아이디: jcy258
신청링크: <https://forms.gle/cvgEsHQEa7op3ma7>

▶Youth 견진성사 교리반에 초대합니다~

대상: 6학년 이상~ 12학년까지의 영어권 청소년
견진성사일: 2024. 3/30(부활성야)
첫모임: 2024년 2/18(주일) 10:30am
문의 및 신청: Sr.효주 347-834-5784

“청소년의 웃음소리는 ☺ 하느님의 음악입니다. ♪”
청소년 한사람, 한사람을 교회로 초대해 주세요~

▶청년, 가톨릭교회 교리서 필독반 모집

대상: 가톨릭 교회의 교리공부를 원하는 청년
일시: 월 1회 토 3pm. 신청: Fr.가롤로

▶청년,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기도, 봉사, 따뜻함이 있는 꽃!
대상: 20대, 30대, 40대 남녀
활동: 매주 회합을 통한 기도 및 활동나눔, 봉사, 본당 협조등
*희망의 모후Pr./ 매주목 6pm 문의: 단장 정다경 마리아 347-514-5783 *우리즐거움의 원천Pr./ 매주일 11am
문의: 단장 이기원 스테파노 929-208-5147

▶브루클린 노숙자 보호소에 의류 기부

드라이클리닝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 중에, 수거되지 않은 드라이클링 의류가 있으면 노숙자 보호소에 기부해 주시길부탁드립니다. 그간 기부해주신 분들 덕분에, 노숙자 보호소 거주인들이 단정한 비즈니스 복장을 입고 면접과 일자리를 구할수 있었습니다. 세금공지용 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문의: 347-834-5784 또는 347-247-4139

▶성경공부(BIBLE ACADEMY)

12월 한달 겨울방학 합니다- Sr.효주

<p>▶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p> <p>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p>
<p>▶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p> <p>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p>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12/10	백승민 안드레아	민완준 필립보	진달래 아가타	진달래 아가타	민덕미 안젤라	양지수글라라 최예준 사도요한
12/17	정유진 콘솔시아	이기수 스테파노	민덕미 안젤라	민덕미 안젤라	김중선 비비안나	김수현실비아 최예준사도요한

▶묵주기도 10만 송이 봉헌하기

기간: 10/01/2023~ 09/30/2024 *현재: 17,550단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라라 (FLORA YANG)
 무역 수입 IMPORT & 수출 EXPORT
 657-337-5130
 marketing@czlusa.com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 nycacu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백승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더큰집
 TEL. 212-564-8238

WONJO
 New Wonjo
 212-695-5815

그리온 miss KOREA
 10 W 32nd St. 1,2,3 FL, New York, NY
 212-594-4963 전 스테파노

HB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32 St.- 33 St.) New York, NY 10001
 Tel : 347-840-2112 Fax : 212-631-8070
 hanbittour@gmail.co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광고주를 찾습니다.



신발 끈

김학배 안젤로 신부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2베드 3.9)” 라는 제2독서의 말씀이 더 두렵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대림 시기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심(강생의 신비)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강생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내려놓으신 참사랑이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가난하고 비천한 이들 안에 현존하시는 참된 겸손입니다. 이 사랑과 겸손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리고 부활의 희망으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작금의 세상에서는 자기만을 아는 이기주의가, 근거도 없는 악한 말들이 그리고 입에 담기조차 무섭고 부끄러운 일들이 일상처럼 생기고 회자됩니다. 더 한심하고 부끄러운 것은 나, 남을 따질 것 없이 종교인들조차도 그 모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 종교 무용론으로 이어지고 종교 구분 없이 배타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당신의 권능을 내려놓으신 주님의 강생을,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겸손과 사랑을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어두운 세상에 부활을 증거하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다가가고 그들이 하느님을 통한 인간의 권리를 느끼도록 함께하는 것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신앙의 참가치를 지켜내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오늘 복음(마르 1,1-8)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생명(마태 14,3-12)을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자신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존재라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지금이 우리 하나하나가 세례자 요한이 되어 주님의 참가치를 준비하고 선포하며, 삶으로 증거하는 겸손의 옷을 입는 은총의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

